

해외출장 보고서

- 독일 기계산업 기업지원 사례조사 -

I. 해외출장 개요

- 출장자 : 지역발전연구센터 김정홍 연구위원
- 출장기간 : 2016년 6월 1일 ~ 6월 11일 (9박 11일)
- 출장지역 : 독일(슈투트가르트, 드레스덴, 베를린)
- 출장목적
 -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수행 중인 용역과제 “옥천군 균형발전사업 및 금형지원센터 추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독일의 기계·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슈투트가르트 등을 방문하여 기업지원정책을 조사함.

○ 출장 일정

날짜	방문기관	면담자	소속 및 직급
6/1(수)	인천 출발→프랑크푸르트 경유 → 슈투트가르트 도착		
6/2(목)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 (Wirtschaftsfoerderung Region Stuttgart GmbH)	Christoph Ronge	Projektleiter
		Oliver Reichert	Cluster initiative Maschinenbau Industrie
	바덴뷔템부르크주 클러스터정책부(Cluster Agentur BW)	Timo Glasbrenner	Projektleiter, Maschinenbau Industrie
6/3(금)	Steinbeis	Sandra Haltmayer	Projektleiterin, Steinbeis-Zentrale
	BW-i	Daniel Jarr	Leiter des Themenfelds Nachhaltige Mobilitaet und maschinenbau
		In-Sook Choi	Leiterin Länderbereiche ASEAN, Korea
		Glasbrenner, Timo	Department Branches, Technologies and Innovation
6/4(토) ~ 6/5(일)	슈투트가르트 → 드레스덴 이동 자료정리		
6/6(월)	드레스덴시청 기업지원부	Kerstin Zimmermann	Abteilungsleiterin Wirtschaftsservice
	삭 소 니 경 제 개 발 공 사 (Wirtschaftsfoerderung Sachen)	Thomas krueger	project Maniger
6/7(화)	실리콘삭소니	Anne Hoer	Office Assistant, Silicon Saxony Management GmbH
6/8(수)	드레스덴↔베를린 이동		
	아들러스호프 사이언스파크 면 담 및 사이언스파크 투어	Josephin Kluge Johannes Bense	Event and Visitors' Center, WISTA - MANAGEMENT GMBH Projektsteuerung, BBW Consulting
6/9(목)	베를린 이노베이션센터(IZBM)	Florian Seiff	Managing Director
6 / 1 0 (금) ~ 6 / 1 1 (토)	베를린 출발→프랑크푸르트 경 유→ 인천 도착		

II. 방문 지역별 주요 내용

1)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기계산업 지원 사례

□ 지역산업 개관

-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이하 'BW주')는 기계, 정보통신(IT), 금속 등이 융합된 지능형메카트로닉스(IMT : Intelligent Mechatronics)와 자동차가 BW주의 핵심 산업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를 주도하는 리딩섹터가 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항공산업과 TIME산업¹⁾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고, 생명공학, 약학, 광학 및 의료기기 등에 접목되어 주변 연관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음.
 - 종사자수 기준으로 BW주의 산업구조를 보면 기계(22.1%), 자동차(19.6%), 전기·전자(16.2%), 금속(11.8%)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BW주의 핵심지역은 슈투트가르트(Stuttgart)로 BW주 인구의 25%, GDP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 독일의 기계산업 관련 30개 대기업 중 10개 정도가 BW주에 입지해 있음.
 - 2014년 기준으로 동 산업에는 약 30만명의 종사자와 707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음.
- Daimler, Porsche, Bosch 등 다국적기업들이 이 지역을 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있지만, 상당부분 경쟁력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이 바탕을 이루고 있음.

1)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media, electronic/electrotechnical engineering의 약자

- 그 중 Bosch는 독일의 대표적인 IMT기업으로, BW주에만 44,000개의 협력업체가 있음.
- Bosch는 2004년에 Stuttgart에서 북쪽으로 40km 지점에 있는 Abstatt에 약 2억 유로를 투자하여 새로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음.
- Bosch는 양질의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이중교육제도(dual educational system)를 운영하여, 지역내 대학과 함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대학과 연구소의 IMT 관련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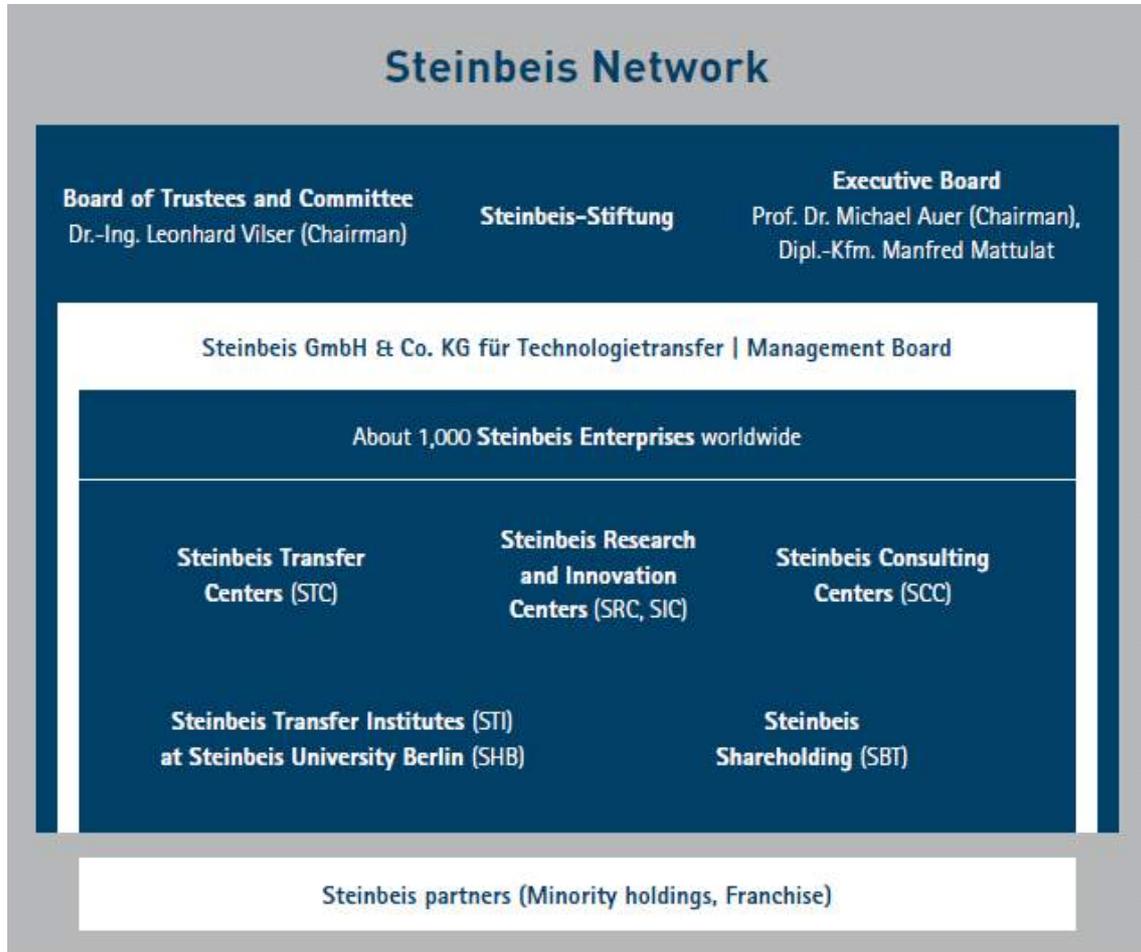
- BW주가 우수한 산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양질의 많은 대학과 연구소가 이 지역에 입지해 있기 때문임.
 - 이 지역에는 BW주가 운영하는 56개의 대학 및 직업학교가 입지해 있는데, 그 중 9개는 Freiburg, Heidelberg, Tübingen 등 저명 연구중심대학이고, 나머지는 교원대학(6개), 기술대학(23개), 행정대학(2개), 직업학교(8개) 및 예체능대학임.
- 또한 BW주에는 독일의 대표적인 연구소인 막스플랑크연구소(Max-Plank -Gesellschaft)와 프라운호퍼연구소(Fraunhofer-Gesellschaft)의 일부(각각 12개, 14개)가 입지해 있음.
 - BW주 내에 소재하고 있는 막스플랑크연구소 중 IMT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는 Max Planck Institute for Metals Research, Stuttgart가 있음.
 - 또한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전체 연구인력의 25% 이상이 BW주에서

근무하고 있고, 약 3,400명 이상이 IMT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BW주에 입지해 있는 프라운호퍼연구소 중 IMT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는 Mechanics of Materials IWM, Freiburg, Manufacturing Engineering and Automation IPA, Stuttgart 등이 있음.
- BW주는 대학과 연구소의 집적으로 GDP 대비 R&D투자 비중이 4.8%(14년)에 달하고 있어, 독일은 물론,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R&D집약도를 시현하고 있음.
- 이런 산학연의 입지를 통해 BW주에서는 특히 IMT산업과 광레이저 산업에서 과학과 산업의 노하우가 활발히 융합되고 있음.

□ 공공지원기관

- 대학교수와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진 6천여명으로 구성된 약 1천개에 달하는 Steinbeis Enterprise를 통해 지역내 기업들에게 기술과 지식이 이전되고 있음.
- Steinbeis의 설립목적은 BW주 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중소기업에 이전시키는 것임.
- 그러나 Steinbeis의 업무영역은 기술이전에 국한되지 않고, R&D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첨단기술 제공, 문제점 파악, 기술시장 분석, 프로젝트 관리, 종업원 교육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함.
- 이 때문에 Steinbeis Enterprise는 Steinbeis Transfer Centers, Steinbeis Research and Innovation Centers, Steinbeis Consulting Centers 등으로 유형이 구분됨.



Steinbeis 입수자료 인용

- BW주는 기업의 유치 및 육성, 지원기관 연계 및 전시회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BW주 경제부, Steinbeis재단, Stuttgart 의회, Stuttgart 디자인센터, BWI²⁾ 등이 세미나 및 회의 등 다양한 교류가 추진됨.
- BWI는 BW주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소재 기업을 위한 시장개척, 국제협력, 지역의 글로벌 마케팅, 외국기업의 유치 및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독일 내 최대규모의 지역 재단(LBW)이 2000년에 자본금 약 2억 4천만 유로 규모로 설립되어, 연간 5천만 유로 정도를 선정된 지역내 프로젝트에 지원함.

2) Baden-Württemberg International

- 동 재단은 과학, 연구뿐 아니라, 사회, 문화, 예술을 포함한 BW주 내 약 300여 프로그램의 1천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 지원분야는 첨단기술 육성, 기업유치 및 투자지원 관련임.
- 동 재단은 각 프로젝트별로 제안서를 받아, 지역의 미래에 새롭고 창의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함.
 - 동 재단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는 i) 혁신, 상업적 성공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선구적인 연구, ii) 개인의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수한 교육, iii) 지역 사회를 강화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는 분야 등임.
 - 동 재단은 BW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산업적 성공이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있음.
- BW주 경제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적어도 두 개의 중소기업과 한 개 이상의 연구기관/대학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경제-과학기술부는 신소재 관련 연구, 생산기술 및 에너지 연구 등의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를 위해 지역 재단(LBW)에서 총 1,800만 유로를 사용함.

② IMT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 BW주에서는 클러스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용의 절대규모, 고용 증가율, 특화도(지역내 산업집중 정도) 등의 분석을 통해 18개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등 IMT산업을

이 핵심 산업을 형성하고 있음.

□ 지역차원의 IMT 관련 응용연구 지원

- 막스플랑크연구소와 대학 연구소 등의 기초연구를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에 접목시키기 위해 지역차원에서 응용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스스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BW주에서는 연간 약 7천만 유로(약 1,200억원) 이상을 중소기업 연구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응용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BW주에 입지해 있는 14개의 프라운호퍼연구소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음.
 - BW주는 중소기업의 응용연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요 파악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새로운 기관의 설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산업분야별로 용역계약에 의한 연구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BW주의 지원을 받는 용역전문 연구소는 현재 12개이며, 그 중 IMT와 관련된 연구소로는 IMIT³⁾, fem⁴⁾ 및 IMS⁵⁾ 등이 있음.
 - 상기 12개 연구소의 예산은 약 8천만 유로 정도이고, 약 2천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음.

□ 메카트로닉스 네트워크 운영

- Kompetenznetzwerk Mechatronik BW(이하 KMBW)는 바덴-뷔르템

3) Hahn-Schickard-Gesellschaft Institut für Mikro- und Informationstechnik

4) Forschungsinstitut Edelmetalle & Metallchemie

5) Institut für Mikroelektronik Stuttgart

베르그의 메카트로닉스 관련 산업, 서비스, 연구 및 교육의 협력 파트너로 구성된 네트워크임.

- 이 네트워크의 중점적인 주제는 메카트로닉스와 IT의 융합으로, 국내외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협력 플랫폼임.
- KMBW의 목적은 BW주가 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 “High-Tech Region Stuttgart”를 넘어 독일 산업거점지역으로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더 나아가 유럽의 성장 중심지가 되는 것으로, 다음 분야를 지원함.
 - 메카트로닉스와 같은 혁신클러스터의 구축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하고, BW주에서 입증된 메카트로닉스 관련 창의력과 혁신을 제품과 서비스에서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우수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고의 파트너와 협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고유 핵심역량 이외의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지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KMBW의 중심활동은 지역소재 산학연의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체로서, 메카트로닉스 기술 관련 교육 훈련, 전략적 협력기업 발굴, 에너지 효율, 표준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것임.
 - 이와 함께, 국제 메카트로닉스 포럼이나 워크샵 시리즈와 같이 정기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수행함.
- 동 네트워크는 기금 이외에도 회원가입비를 받아 운영함.
 - 각 회사는 신청자가 KMBW구성원으로 적합한지 고려해 평가 여부를 가진 KMBW의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회원신청 적격 여

부를 심사함.

- 동 네트워크의 실행주체로서 슈투트가르트 주변지역을 포함해 12개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12개의 Kompetenzzentrum(Competence Centers)가 운영되고 있음.
- 동 센터의 목적은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시키기 위한 산학연 협력의 주체로서 창업기업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부 센터에서는 창업공간 및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음.

2) 작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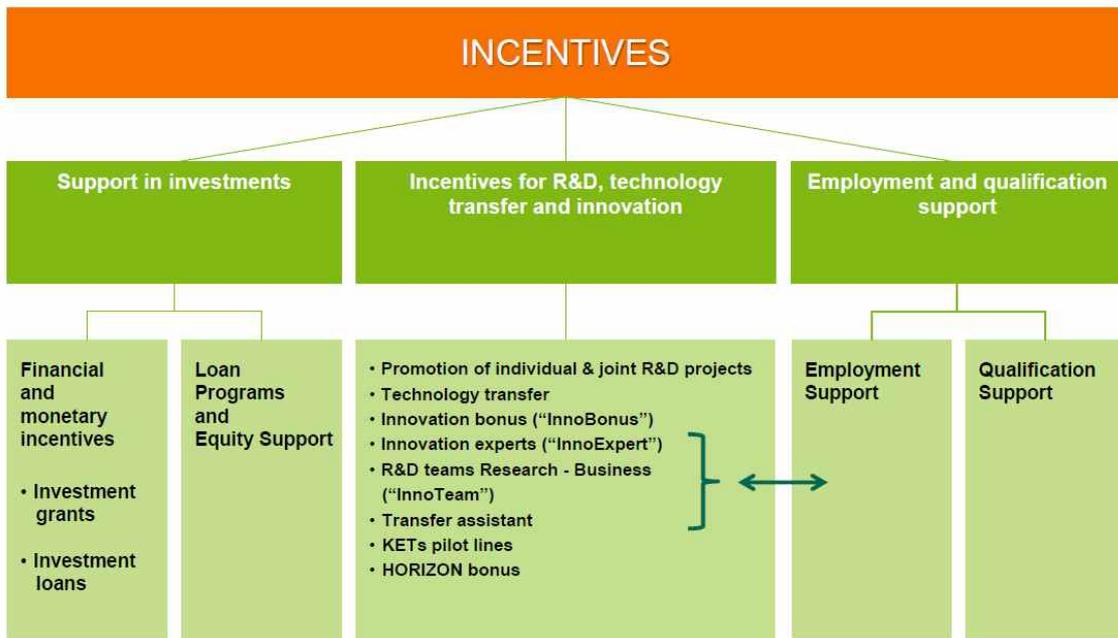
- 구동독소재 작센주(Saxony)는 통일 직후인 1990년 무렵 약 6천여개의 기업이 입지해 있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연간 20% 이상 성장해 독일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 작센주는 Autoland Saxony로 불릴만큼 독일 최고의 자동차 중심지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이 발전해 있으며, 그 중심이 주도인 드레스덴(Dresden)과 라이프찌히(Leipzig)임.
 - 드레스덴에는 폭스바겐, BMW, 포르쉐 등 글로벌 자동차기업이 이 지역에 입지해 있으며, 750여개의 부품업체에 8만 1천여명이 종사하고 있음.
 - 라이프찌히는 독일 물류의 허브로, 물류 대기업인 DHL이 입지해 있음.

A SELECTION OF MECHANICAL ENGINEERING AND PLANT CONSTRUCTION COMPANIES IN SAXONY



삭소니경제개발공사 입수자료 인용.

- 드레스덴에는 Globalfoundries나 Infineon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지해 있어 Silicon Saxony라고 불리고 있음.
 - 실리콘 삭소니에는 2,200개 기업에 5만 8천여명이 종사하고 있어 유럽 최대의 IT클러스터이며, 세계 5위의 클러스터임.
- 작센주에는 양질의 대학 및 연구시설이 많이 입지해 있어 관련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음.
 - 이를 상술하면 대학 34개, 프라운호퍼연구소 18개, 막스플랑크연구소 6개, 라이브니쯔연구소 3개, 헬름홀쯔연구소 3개, 기타 산업연구시설 22개 등이 입지해 있음.
- 작센지역에는 1천여개의 기계 관련 기업에 4만 5천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잘 갖춰져 있음.
 - 기계산업은 작센주 총 산업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수출되고 있음.
 - 창업지원정책은 투자지원, R&D지원, 고용지원 등 3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음.



작소니경제개발공사 입수자료 인용.

- 작센주에는 Siemens, Niles-Simmons, Heckert, Starrag, Trumpf, Linde 등 세계적인 기계 관련 기업이 입지해 있으며, 그 중심도시가 켐니쯔(Chemnitz)임.
- 혁신역량을 가진 중소기업 중심의 기계산업은 자동차, 의료기기, 플랜트, IT 등 연관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음.
- 켐니쯔에는 유명한 공작기계 및 금형 기업으로 Anchor Lamina사가 입지해 있으며, 그 외에도 AWEBA Werkzeugbau, Kuka Systems 등이 있음.
- 기계엔지니어링 관련 연구시설은 켐니쯔공대(Chemnitz University of Technology)가 중심이 되어 8개 대학, 2개 직업학교가 있으며 매년 6천명의 엔지니어가 배출되고 있음.
- 연구소는 프라운호퍼연구소 분소 10개, 라이프니쯔연구소 분소 4개 외에도 민간연구소인 켐니쯔기계플란트공학연구소(ICM : Institute of Mechanical and Plant Engineering Chemnitz e.V.)이 기계산업

혁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작센주의 기계·플랜트 관련 기업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로는 Innovation Network Mechanical Engineering Saxony (VEMASinnovativ)가 있음.
 - 이 네트워크는 혁신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 및 고급인력 채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동 네트워크는 험니쯔에 있는 프라운호퍼 기계금형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Machine Tools and Forming Technology IWU)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음.
- 프라운호퍼 기계금형연구소는 66개 프라운호퍼연구회의 일원으로, 험니쯔지역의 기계산업을 견인하는 앵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동 연구소는 기계금형 관련 위탁 연구용역의 수행, 기초연구나 첨단연구에 관한 산학연 공동연구, 기계부품 공급기업을 대신한 시험 연구, 보유 장비의 민간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연구소의 연구분야는 금형본부, 메카트로닉스본부, 기계·자동차본부 등 크게 3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연구소는 4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데, 핵심 시설은 험니쯔와 드레스덴이 중심이고, 그 외에 프로젝트 그룹이 아우스부르크와 Zittau에 나가 있음.
- 프라운호퍼 기계금형연구소는 1990년대 중반 험니쯔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었는데, 험니쯔공대에 인접해 있음.

- 생산기술단지라고 할 수 있는 'E3-Production' 캠퍼스는 9,500m²의 면적에 금형·절삭 관련 대규모 검사용 장비와 함께, 금형센터와 가상현실센터가 입지해 있음.
- 드레스덴의 프라운호퍼 기계금형연구소는 드레스덴공대 근처에 2006년 설립되었음.
- 여기에는 의료기기 등에 접목된 기계장비로, 연구시설 외에 1천m² 규모의 기술검사장비를 갖춘 시설이 입지해 있음.

3) 아들러스호프 사이언스파크

- 베를린 주정부는 1991년 9월 이 지역에 사이언스파크로서의 베를린 아들러스호프⁶⁾를 설립하여 구동독지역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베를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베를린 아들러스호프는 설립 당시 베를린 주정부가 2억 3,000유로, EU의 지역발전기금(ERDF⁷⁾)으로부터 약 13억 유로 등 총 15억 유로가 투입되어 부지를 조성하고, 관련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기 시작하였음.
- 아들러스호프는 1991년 설립 초기에 광학, 정보기술, 바이오·환경·에너지, 재료 등의 기술에 중점을 두어 5개의 센터⁸⁾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8개 센터⁹⁾로 확장되었음.
- 여기에는 첨단기업이 입지해 있는 과학기술단지 외에 미디어시티, 훔볼트대학교,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음.

6) Berlin-Adlershof Science and Technology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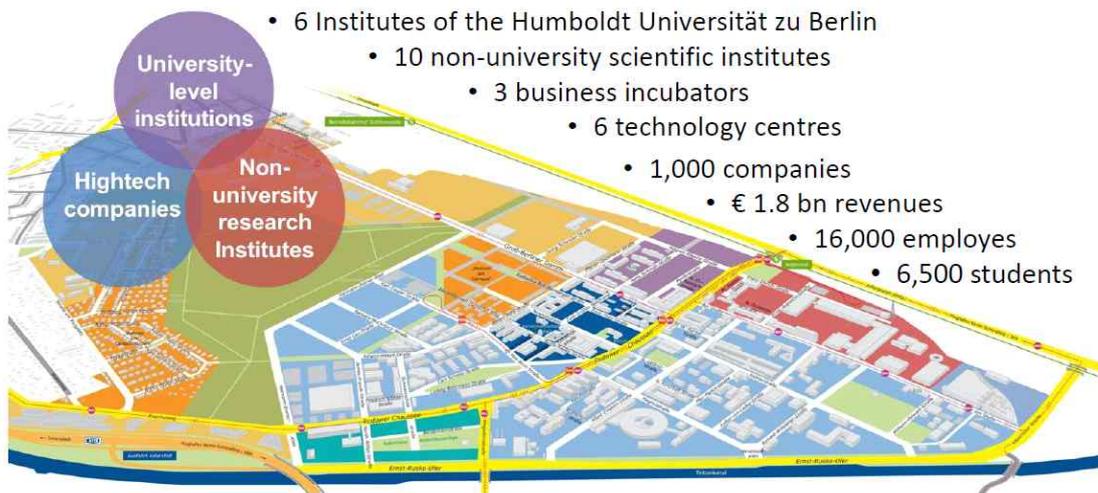
7)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8) 혁신사업인큐베이션센터, 광학기술센터, 바이오·환경센터, 정보미디어기술센터, 마이크로시스템·재료센터

9) 기존 센터에 국제창업센터, 미디어센터, 태양광전지센터 등이 추가됨.

- 2014년말 현재 베를린 아들러스호프 5개 구역에는 기업체가 총 1,001개 입주해 있음.
- 또한 이 지역 전체 산학연의 총고용 규모는 15,931명이고 총수입은 1조 8,250억 유로이며, 기금 등 지원규모는 8,240만 유로에 달하고 있음.

Adlershof: A unique SciTech Clu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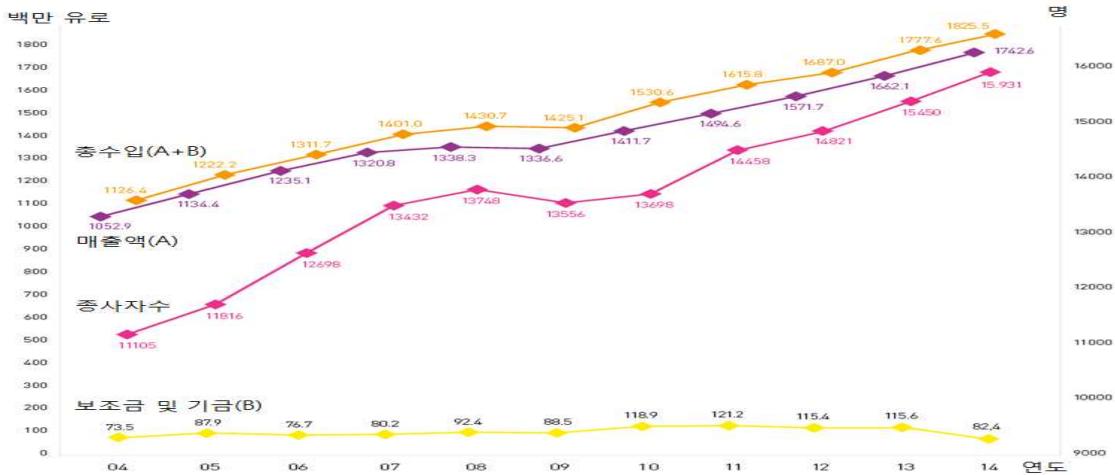


Adleshof 입수자료 인용

- 2013년에만 135개의 새로운 기업이 아들러스호프로 유치되거나 새로이 창업하였음.
- 그 중 과학기술단지외에서 유치된 기업은 53개, 유출된 기업은 34개로 19개사가 순유입되었음.
- 이러한 성장세가 반영되어 최근 10년 동안 아들러스호프 내 기업들은 매출이 총 70%, 고용이 총 50% 증가하였음.
- 베를린 아들러스호프에 입지한 연구소는 2014년말 현재 총 16개로, 그 중 6개는 훔볼트대학교 부설연구소임.

- 연구소 종사자 수는 훔볼트대학교에 1,064명, 일반 연구소에 1,687명 등 약 2,700여명이며, 기금을 포함한 이들 연구소의 총 소요예산은 2억 5,630만 유로에 달함.

최근 10년 간 베를린 아들러스호프의 성장 추세



자료 : Berlin Adlershof, *Jaresbericht 2014*, p.9

- 베를린 아들러스호프의 경우 창업 초기에 있는 기술창업기업의 유치 및 설립은 베를린혁신센터(IZBM)¹⁰가, 과학기술단지 내 기업의 운영지원은 비스타(WISTA¹¹)가, 용지의 매각 관련 업무는 아들러스호프 프로젝트사(APG¹²)가 지원하고 있음.
- IZBM은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사무실, 실험실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세 개의 인큐베이션센터(IGZ¹³, OWZ¹⁴, CHIC¹⁵)를 관리함.
- 또한 IZBM에서는 창업 초기 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수행함.

10) Innovation-Centre Berlin Management GmbH
 11) WISTA-MANAGEMENT GMBH
 12) Adlershof Projekt GmbH
 13) Innovation and Business Incubation Centre
 14) International Business Incubation Centre
 15) Charlottenburg Innovation-Centre

- 예컨대 IZBM에서는 베를린기술대학교(TU Berlin)와 함께 전시공간이나 마케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여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IZBM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자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IZBM은 2014년에만 600만 유로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음.
- WISTA에서는 5개 구역 중 주로 과학기술단지 내 기업을 위해 기술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기업 유치, 창업기업 지원, 산학연 네트워킹, 국내외 협력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동 기관은 훔볼트대학교 연구소 및 기술이전센터와 협력하여 공동연구, 기술이전 및 대학 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WISTA는 2013년에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접촉을 하였으며, 첨단기업의 유치 및 관리를 위해 아들러스호프에 있는 기업의 핵심 역량 등 관련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음.
- APG는 베를린주정부의 위탁을 받은 도시개발기관으로, 아들러스호프 내 용지 활용 기획, 개발,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 특히 APG는 아들러스호프 내 주정부 소유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첨단기업이나 과학연구소 등에 매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그 외에도 별도의 시설관리 회사인(AFM¹⁶)를 두고 아들러스호프 내 5개 지구의 빌딩 임대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16) Adlershof Facility Management GmbH